

군산의 전설, 클래식 선율로 되살아난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84회 기획연주회 9월 17일 ‘군산의 전설 사계’ · 비발디 ‘사계’ 선사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4회 기획연주회 ‘군산의 전설’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군산이 품고 있는 오랜 설화와 역사, 그리고 땅과 바다가 빚어낸 아름다운 사계절을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풀어낸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을 클래식 음악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공연 전반부에서는 작곡가 이원정의 교향시 ‘군산의 전설 사계’가 연주된다. 이원정 작곡가는 Schiedmayer&Söhne 주최 국제작곡콩쿠르에서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총

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산의 전설 사계’는 군산의 대표적인 명소와 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1악장 ‘은파의 봄’ △2악장 ‘진포의 여름’ △3악장 ‘오성산의 가을’ △4악장 ‘고군산군도의 겨울’로 구성된다. 군산의 역사와 자연이 지닌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음향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김연아는 주하이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KBS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

빌레’ 등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연아는 이날 안토니오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 전곡을 연주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비발디의 음악과 김연아의 섬세한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이다. 티켓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예매 관련 문의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063-454-5556)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 부산농악보존회, ‘고창농악 상설굿판’ 호응

고창농악보존회와 부산농악보존회가 함께한 ‘생생한 굿판의 현장! 고창농악 상설굿판’ 마지막 공연이 지난 7월 31일 군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 生生고창 국가함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상설굿판의 마지막 무대가 성수면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임성준)와 부산농악보존회(회장 강신일)가 함께 출연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의 특색과 예술성을 선보였다. 또한 함찬 풍물 가락과 역동적인 판굿, 상모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단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흥을 한층 더했다.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고창농악과 전국 각지의 우수 농악단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매지농악보존회(회장 강성태), 6월에는 충청도 청주농악보존회(회장 이재웅), 7월에는 경상도 부산농악보존회(회장



고창농악보존회와 부산농악보존회가 함께한 ‘생생한 굿판의 현장! 고창농악 상설굿판’ 마지막 공연이 지난 7월 31일 군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강신일)가 참여해 지역별 농악의 다양한 전통과 개성을 선보였다. 특히 상설굿판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우리 전통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지역 간 농악 교류를 통해 고창농악의 우수성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 ‘박물관 음악회’ 8월 개최

부안군은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 ‘박물관 음악회’가 오는 8월 오후 2시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자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

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서는 비보이(B-boy) 퍼포먼스를 비롯해 통기타 공연, 풍선아트, 탭댄스, 전통무용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비보이(B-boy) 퍼포먼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감미로운 통기타 공연 이외에 장르별



특색을 살린 공연이 연이어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안=김정진 기자

‘물 좋은 상관, 상관 워터풀파티’

9월 12~13일 숙박 · 먹거리 · 워터파티 연결 완주형 체류관광 콘텐츠 진행

원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 상관면 일원에서 ‘물 좋은 상관, 2026 상관 워터풀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완주군이 함께하고, 원주문화관광재단과 완주DMO를 중심으로 상관면 주민과 숙박업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체류관광 축제다.

상관은 온천과 편백수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새만금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여행객이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다. 이번 축제는 ‘지나가는 상관’을 ‘머무는 상관’으로 바꾸기 위한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상관 워터풀파티는 물(Water), 숲(Forest), 숙박(Stay), 지역 먹거리(Local Food)를 하나의 여행으로 연결한 축제다. 낮에는 물놀이와 숲 체험, 공예 프로그램, 로컬 먹거리를 즐기고, 밤에는 DJ 워터파티와 불꽃놀이를 통해 상관만의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상관리조트, 보현유황온천엔리조트, 황토펜션, 별해는반펜션, 숲내음펜션, 여림재 등 상관면 숙박시설과 편백수 일원이 축제 공간으로 활용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워터풀파티 △편백수 힐링 · 액티비티 △공예 체험 △상관 주민 먹거리마켓 △숙박 연계 풀캉스 △개막식



△DJ 워터파티 △피날레 불꽃쇼 등이다. 특히 9월 12일 오후 7시 30분 보현유황온천엔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DJ 워터파티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주민과 숙박업체가 축제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권은 종일권 · 주간권 · 야간권으로 운영되며, 사전예약은 공식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8월 이달의 유물 전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조각으로 보는 유물’을 주제로 8월 이달의 유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분청사기 편, 막새기와 등 고창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10점과 유물의 형태 · 무늬를 그림으로 재현한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유물을 가까이서 관람하며 원래 형태를 유추해 보며, 조선시대 미학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분청사기는 백자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회청색 태토 위에 백토를 입혀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롭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함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고인돌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이달의 유물은 박물관에서 보관 · 관리하는 국가귀속 유물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로 국가귀속 유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치개)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치개)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치개)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